

## 이달의 이슈 | 01

# 활발해지고 있는 서울 스타트업 생태계와 그 과제



임 정욱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센터장  
jlim@startupall.kr

## 1.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한 스타트업 환경

한국에 아이폰이 처음 상륙한 2009년 11월에 한국의 창업생태계도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했다. 아이폰을 통해 스마트폰을 처음 써본 사람들은 이 새로운 혁신적인 기계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다. 특히 스마트폰 앱을 만들어 사람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돈을 벌어보겠다는 창업 욕구가 분출되기 시작했다. 1999년의 인터넷 붐만큼 과열되지는 않았지만 아이폰 상륙 이후 흥미로운 회사들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했다. 카카오톡이라는 메신저나 음식배달정보를 찾을 수 있는 배달의 민족 같은 앱이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했다. 스마트폰 보급률이 급속히 높아지면서 이러한 모바일 기반 창업 아이디어는 점점 더 많이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2010년 당시 한국의 창업 환경은 매우 척박했다. 창업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초기 스타트업에 기꺼이 투자해주는 벤처캐피털은 많지 않았다. 그리고 스타트업 관련 정보를 구하거나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행사나 장소도 거의 없었다. 창업자들은 '맨땅에 헤딩

### 저자 학력, 경력 및 최근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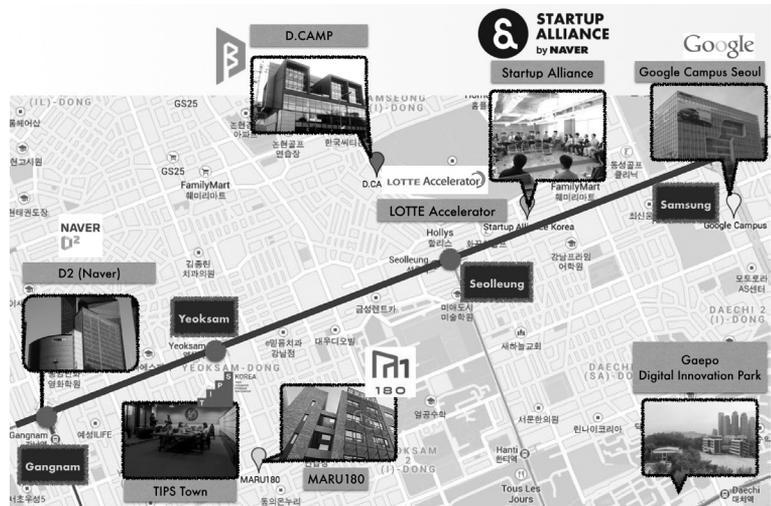
-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경영대학원 졸업, 전 조선일보 JNS 대표이사, 전 미국 라이코스 CEO, 전 다음 커뮤니케이션 글로벌부부장, 현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센터장



### 1) 스타트업 허브로 부상하는 강남 테헤란로

지난 3년간 서울의 창업생태계에서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서울 강남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스타트업 허브가 부상한 점이다. 2013년 3월에 선릉역 인근에 탄생한 은행권청년창업재단의 디캠프(D.CAMP)를 필두로 해서 2014년 3월에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2014년 4월에 마루180, 2015년 4월에 구글캠퍼스 서울, 2015년 5월에 네이버 D2 스타트업 팩토리, 2015년 7월에 팁스(TIPS)타운 등 강남, 역삼, 선릉, 삼성역을 따라서 많은 스타트업 지원센터가 생겼다. 그리고 지난 10월 말에는 개포동의 옛 일본인학교 자리에 개포디지털혁신파크가 문을 열었다.

이들 센터는 대부분 예비창업자가 자유롭게 와서 일을 할 수 있는 카페나 협업 공간을 제공한다. 디캠프 등은 초기 스타트업들이 단기간 동안 입주해 일할 수 있는 독립된 사무실 공간을 제공하기도 한다. 그리고 100명 내외의 사람이 모임을 가질 수 있는 이벤트공간에서 수시로 행사를 개최한다. 덕분에 이들 센터에서 거의 매일처럼 스타트업 관련 행사와 모임이 열리게 되었고 한국의 스타트업 창업 붐을 만드는 데 큰 공헌을 하게 됐다.



자료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그림 2〉 강남 테헤란로의 스타트업 허브

그렇다면 왜 강남에 이렇게 스타트업 허브가 형성됐을까?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테헤란로는 원래 1999년~2000년 인터넷 붐 당시 IT 기업들이 모였던 곳으로 테헤란밸리라고 불렸다. 지금은 분당이나 판교로 이전했지만 네이버, 넥슨, NC소프트 등이 이곳에 있었다. 지금도 쿠

팡, 티켓몬스터, 위메프 등 전자상거래 회사들과 구글코리아, 페이스북 코리아, 이베이코리아 등 많은 IT회사가 있다. 즉, 스타트업의 고객이 될 만한 회사들이 많은 것이다. 또 성장하기 위해 투자를 받는 것이 절실한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투자자들에게 가까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벤처캐피털협회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117개 벤처캐피털회사 중 서울에 본거지를 둔 곳이 89%이고 그중에서 77%가 강남구에 본거지를 두고 있다. 교통의 요지인 강남에 사무실을 두는 것이 인재를 채용하는데 유리하다는 장점도 있다. 이렇다 보니 스타트업들도 주로 서울에, 특히 강남3구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을 보인다. 스타트업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켓펀치에 등재된 3,815개의 스타트업의 소재지를 분석해보면 3,815개의 스타트업 중 79%인 3,036개가 서울에 있었으며, 서울에 있는 3,036개의 스타트업 중 42%인 1,302개가 강남3구에 있었다.

## 2)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의 급증

최근 몇 년 사이에 비약적으로 가장 많이 늘어난 투자기관이 있다. 바로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이다. <그림 1>의 스타트업 생태계 지도에는 거의 30개 가까운 엑셀러레이터가 있다. 2005년 미국 실리콘밸리의 ‘와이컴비네이터(Y Combinator)’가 처음 시작한 엑셀러레이터 모델은 새로운 스타트업 창업 지원 모델로 각광받으며 전 세계적으로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실리콘밸리의 현인으로 존경받는 와이컴비네이터 창업자 폴 그램의 유명세와 이 프로그램 출신 스타트업으로 에어비앤비(Airbnb), 드롭박스(Dropbox) 등 조 단위의 기업 가치를 자랑하는 세계적인 성공 사례들이 나오면서 엑셀러레이터 모델이 크게 주목받게 됐다. 지금은 전 세계에 수백 개 이상의 엑셀러레이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의 핵심요소는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소액 지분투자자와 함께 이뤄지는 일정한 기간의 집중훈련(멘토링)이다. 보통 엑셀러레이터는 보통 한 기수에 적게는 여러 곳에서 많게는 수십 곳의 유망한 스타트업을 선발해 각각 수천만 원 수준의 자금을 투자해 5% 내외의 지분을 확보한다. 그런 다음 이들을 자신들의 창업 보육 공간에 입주 시킨 뒤 3개월이나 6개월의 스파르타식 교육과 멘토링을 거쳐 제품이나 서비스를 빠르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 성공 경험을 가진 창업자 출신들이 아주 자세하게 제품개발과 마케팅 등의 방법을 조언해주는 것이다. 더불어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자신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많은 투자자를 모아놓고 데모데이를 실시해 추가 펀딩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스타트업들에게 마련해준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의 엑셀러레이터로는 ‘다음’의 공동창업자인 이재웅, 이택경 씨와 ‘이니시스’의 창업자인 권도균 씨 등이 2010년

출범시킨 '프라이어'가 효시라고 할 수 있다. 프라이머는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이용해 매회 10~20개 팀에 투자하고 멘토링을 활용해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했다. 그리고 '엔틴십'이라는 온·오프라인 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3백여 개 팀을 교육하기도 했다. 이후 '스톤브리지' 출신의 박지웅 대표의 '패스트트랙아시아', '올라웍스'를 창업해 인텔에 매각한 류중희 대표가 이끄는 '퓨처플레이', '비키(Viki)'를 창업해 '라쿠텐'에 매각한 호창성, 문지원 씨가 이끄는 '더벤처스', 글로벌네트워크를 강조하는 '스파크랩스' 등이 국내 액셀러레이터로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미리 선정한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나 초기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털이 1억 원을 기술 기반 스타트업에 투자한 후 신청하면 중소기업청에서 R&D 지원금으로 5억 원을 매칭 투자해주는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 프로그램'인 팁스(TIPS) 프로그램도 액셀러레이터가 늘어나게 만든 요인 중의 하나다. 중소기업청의 팁스 프로그램은 지난 2년여 동안 제휴한 20여 개의 창업투자사가 초기 투자한 180여 개의 스타트업을 선정해 자금을 지원했다.

### 3) 해외 벤처캐피털의 서울 진출

실리콘밸리와 일본의 몇몇 벤처캐피털이 한국에 들어와 활발하게 투자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중국의 벤처캐피털까지 들어오고 있다. 실리콘밸리 투자사로는 '알토스벤처스'와 '500스타트업'이 꼽힌다. 1990년대 스탠포드대에서 MBA학위를 이수하고 알토스벤처스를 창업한 김한준 대표는 쿠광과 우아한 형제들 등 급성장하는 한국의 스타트업에 일찍 투자해 성장시킨 뒤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세콰이어캐피털 등 해외투자 자본을 끌어들이 수백억 원씩 투자하도록 하는 전략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쿠광은 2015년 일본 소프트뱅크에서 10억 달러(1조 1,500억 원)의 투자를 이끌어내 화제를 모았고, 배달의 민족 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도 중국의 힐하우스캐피털 등에서 올해 4월 57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순조롭게 성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성공에 힘입어 알토스벤처스는 2013년 700억 원 규모의 KOF펀드(한국기회펀드) 1호를 조성했고 올해 4월에는 1,200억 원 규모의 2호 펀드 구성을 완료했다.

일본의 벤처캐피털로는 '글로벌브레인'과 '사이버에이전트'가 서울 지사를 설립하고 투자를 늘리고 있다. 글로벌브레인이 2013년 25억 원을 초기 투자한 '파이버락스'는 2014년 실리콘밸리의 '탭조이'에 매각되는 성공을 거뒀다. 이에 고무된 글로벌브레인은 올해 4월 4백억 원 규모의 한국 전용 펀드를 결성했다.

중국의 벤처캐피털인 DT캐피털도 한국투자를 늘리고 있다. 중국 내 10대 벤처캐피털인 이 회사는 지난해부터 한국에 진출해 전자상거래 스

타트업 ‘비투링크’, 모바일콘텐츠 스타트업 ‘스마트스터디’ 등에 수십억 원씩을 투자했다.

해외 벤처캐피탈의 국내 스타트업 투자는 성장 단계에 접어들어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한 국내 스타트업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또 이들 벤처캐피탈의 글로벌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진출에 도움을 받는 등 더 큰 후속 투자도 유치할 수 있게 됐다.

#### 4) 대기업의 스타트업 투자와 육성 노력

대기업들도 워낙 변화가 빠른 요즘 내부적으로 빠른 혁신을 만들어내기 어렵다는 점을 절감하고 있다. 그래서 회사내부에 벤처캐피탈펀드를 만들고 스타트업 투자에 나서거나 액셀러레이터를 설립해 스타트업을 키우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삼성벤처스를, 인텔이나 퀄컴 같은 회사들은 인텔캐피탈, 퀄컴벤처스 같은 회사를 운영해서 본사의 장기 비전에 맞는 스타트업을 일찍 발굴해 투자하고 있다. 이 같은 대기업 내의 벤처캐피탈을 CVC(Corporate Venture Capital)라고 한다. 또 최근 몇 년간 대기업들은 초기 스타트업에 직접 투자하고 사무실 공간, 멘토링 등을 지원하는 인큐베이터, 액셀러레이터 역할까지 나서고 있다. 한화그룹의 IT계열사인 한화S&C는 2014년부터 ‘드림플러스’라는 액셀러레이터를 만들고 25개 스타트업에 투자했다. 한화는 최근 여의도에 핀테크 센터를 열기도 했다. 네이버는 지난해 5월에 강남역 근처에 ‘D2 스타트업 팩토리’라는 액셀러레이터를 만들었다. 네이버는 ‘플라리언트’, ‘아이데카’, ‘로플렛’ 등의 기술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사무실 공간도 제공하고 있다. 롯데는 지난 2월 선릉역 인근에 ‘롯데액셀러레이터’를 만들고 활발히 투자하고 있다. SK플래닛과 GS홈쇼핑도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활발히 육성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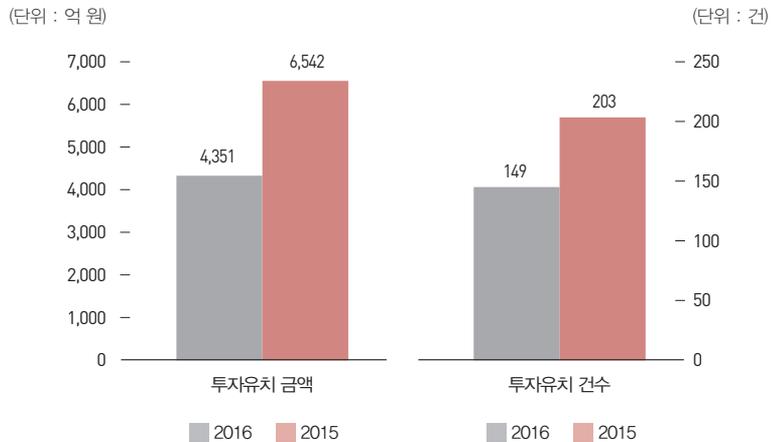
### 3. 국내 스타트업 투자 현황

① 2015년 5월 있었던 일본 소프트뱅크의 쿠팡 10억 달러 (1조 1천억 원) 투자 건은 워낙 액수가 크고 쿠팡이 이미 스타트업 단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여 제외했다.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스타트업 생태계의 여건은 여전히 좋다. 스타트업 전문 미디어 ‘플랫폼’의 매월 투자동향리포트를 바탕으로 2015년과 2016년 10월까지 누적된 테크 스타트업 투자 실적을 비교해보면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금액과 투자유치 건수가 2016년에 훨씬 더 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투자유치 금액은 4,351억 원에서 6,542억 원으로 50%나 늘었다. 투자유치 건수도 149건에서 203건으로 증가했다.①

2015년 전체와 2016년 8월까지의 투자유치 상위 10개사를 비교해보면 올해 성적이 좋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5년에는 650억 원 투자를 받은 ‘쏘카’와 590억 원 투자를 받은 ‘직방’이 주목을 받았는데 2016년에

는 10월까지 500억 원이 넘는 투자를 받은 회사가 '미미박스', '우아한 형제들(배달의 민족)', '레진엔터테인먼트' 등 3개 사다.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는 10억 원 이상의 투자를 받은 주요 스타트업을 분야별로 망라한 인포그래픽을 2015년 10월부터 작성하고 있는데 처음에 80여 개 회사로 시작했던 것이 1년 사이에 2백여 개 회사로 2배 이상 늘었다. 중소기업청의 집계에 따르면 2016년 상반기의 벤처펀드 결성액도 1조 6,682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해 이 같은 투자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주 2015년 6월 소프트뱅크의 쿠팡 10억 달러 투자 제외

자료 플래텀

〈그림 3〉 2015년과 2016년 스타트업 투자 실적 비교(1월부터 10월까지의 누적수치)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어떤 분야가 가장 뜨거운가? 우선 오프라인 비즈니스를 스마트폰을 통해 온라인으로 연결해주는 O2O(Online to Offline)비즈니스가 가장 뜨겁다. 음식배달을 비롯해 차량, 의료, 가사, 배달, 여행, 숙박, 부동산중개 등 생활 밀착형 분야에 많은 스타트업이 등장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올해 1백억 원 이상 투자를 받은 10개의 스타트업 중 '우아한 형제들', '야놀자', '여기어때', '핑퐁' 등은 O2O 스타트업이다. 두 번째로 뜨거운 분야는 핀테크다. 송금, 자산관리, 대출, 지급결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기업이 등장하고 있다. 그중 특히 P2P대출 분야에서 수많은 창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표면적으로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숙제도 있다. 우선 다양한 분야에서의 스타트업 창업이 부족하다. 알파고 충격 이후 인공지능 분야에 글로벌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으나 '마인즈랩', '코노랩스' 등 몇몇 스타트업을 제외하고 아직 많지 않

다.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도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분야이며 많은 관련 스타트업이 등장하고 있으나 이미 VR체험방이 4천 개 이상 있다는 중국에 비하면 뒤쳐진 상태다.

‘우버’, ‘디디추싱’, ‘리프트’, ‘그랩’ 등 수조 원에서 수십조 원 기업가치의 스타트업이 전 세계에 쏟아지고 있는 승차공유(Ridesharing) 분야도 한국은 규제로 인해 불모지에 가깝다. 출퇴근시간 카풀방식으로 승차서비스를 제공하는 ‘폴리스’ 등의 스타트업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새롭게 떠오르는 오토테크 분야의 스타트업도 거의 없다.

흥미로운 하드웨어 제품을 내서 ‘킵스타터’ 등에서 주목을 모으고 있는 한국 스타트업은 많다. 하지만 1백억 원 이상을 투자받을 정도로 성장단계에 이른 하드웨어 스타트업은 보이지 않는다. 게임 분야도 스타트업들은 조용하다. 모바일 게임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스타트업 생태계에 선순환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엑시트(Exit, 투자회수)이 많아져야 한다. 엑시트는 스타트업이 주식시장에 상장(IPO)하거나 대기업에 매각(M&A)되는 것을 말한다. 벤처투자자가 스타트업에 투자한 돈은 이 엑시트 과정을 통해 회수된다. 이처럼 스타트업을 시작한 창업자와 벤처투자자가 엑시트를 통해 돈을 벌어야 다시 또 좋은 스타트업에 돈이 투자된다. 선순환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테크 스타트업의 상장도 전무하고 1백억 원 이상 가격으로 M&A가 이뤄진 경우도 없다. 규모가 되는 스타트업 인수합병은 지난해 5월 카카오가 ‘김기샤’ 앱으로 유명한 ‘룩엔롤’을 626억 원에 인수한 것이 마지막이다. 국내 대기업이 스타트업을 인수하지 않는다면 해외 기업이 인수해주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도 2년 전 미국의 ‘탭조이’가 국내 스타트업 ‘파이브락스’를 인수한 것이 마지막이었다. 글로벌 스타트업 붐과 창조경제 정책으로 스타트업 투자가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엑시트가 거의 없다는 것은 우려할 만한 일이다.

#### 4. 서울시의 향후 과제

서울은 창업하는 데 상당한 경쟁력을 가진 곳이다. 국내 인구의 1/4과 대부분의 부, 그리고 주요 기업이 모인 서울은 스타트업 성공을 위한 시장이 있는 곳이다. 서울에 위치한 주요 대학도 스타트업에 인재를 공급해줄 수 있다. 그리고 이들 스타트업에 투자해줄 수 있는 벤처캐피털(창업투자사)들도 거의 90%가 서울에 위치하고 있다. 또 세계 최상위권의 인터넷, 모바일 인프라도 빠뜨릴 수 없는 강점이다. 이런 서울에 더 필요한 것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스타트업 생태계를 키우는 것이다.

첫째, 서울 창업생태계의 글로벌화가 필요하다. 많은 외국인이 서울에 와서 창업을 하거나 국내 스타트업에 해외 인재들이 들어와 섞이는 것

이 필요하다. 서울 스타트업 생태계에 좀 더 다양성이 생겨야 국제 경쟁력도 따라온다. 해외투자자들이 좀 더 자주 서울에 와서 스타트업을 만나는 기회도 마련해 줘야 한다. 지금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서울글로벌창업센터가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 창업가들을 도와주고 있는데 이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들이 많이 모이는 이태원 같은 곳에서 창업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해외투자자들이 방문해서 한국의 주요 스타트업들을 만나고 트렌드를 살펴볼 수 있도록 영어로 진행되는 글로벌한 스타트업 콘퍼런스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 매년 열리는 핀란드 헬싱키의 ‘슬러쉬’나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파이오니어스 페스티벌’은 그 지역을 대표하는 스타트업 행사로 자리 잡아 매년 글로벌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둘째, 더욱 적극적인 규제완화가 요구된다. 스마트폰이 등장한 이래 수십 년 된 기존의 각종 법규와 규칙이 새로운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교통, 운송 관련 각종 규제다. 싱가포르, 베이징이나 샌프란시스코 심지어는 자카르타 같은 도시까지 스마트폰을 이용한 각종 서비스가 교통과 물류시스템을 혁명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서울시도 점진적으로 시민의 편의를 위해 규제를 줄여나가면서 이런 새로운 서비스들이 등장해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교통, 운송, 의료,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울이 혁신적인 스타트업을 가장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도시라는 이미지를 만들어야 한다.

셋째, 주요 대학가를 중심으로 창업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스탠포드대학을 중심으로 실리콘밸리생태계가 만들어진 것처럼 대학이 창업생태계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서울의 대학들은 창업생태계와 단절되어 있는 모습이다. 대학가에 스타트업들이 모여들고 투자자들의 사무실까지 생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미 대학가 주변 창업거점센터를 조성, 운영하는 사업을 진행 중인데 더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 대학과 연계해서 대학가 외부에 창업센터를 조성하고 벤처투자자들의 사무실을 지원하는 것도 방법이다.

넷째, 특성화된 스타트업 허브가 육성되어야 한다. 지역의 특성과 맞물리게 해서 하드웨어 스타트업은 성수동, 핀테크 스타트업은 여의도, 게임 스타트업은 구로디지털단지 같은 식으로 특색이 있는 허브를 구성하는 것이다. 지역별로 해당 분야 스타트업이 오면 임대료나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도 방법이다.

다섯째, IT분야 국내·외 대기업을 주요 거점에 유치하는 것도 필요하다. 최근 10년 사이에 네이버, 카카오, 엔씨소프트 등 주요 IT기업이 분당, 판교 등으로 본거지를 옮겼다. 필연적으로 관련 핵심엔지니어들도

생활의 터전을 그쪽으로 옮기게 된다. 나중에 창업을 하더라도 계속 그 근처에 머물게 되는 것은 물론이다. 샌프란시스코 시는 슬럼가가 된 시빅센터 주변 지역에 트위터 본사를 유치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스타트업 허브를 만들었다. 서울시도 좋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이런 노력을 기울이다 보면 서울시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스타트업 중심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하루아침에는 될 수 없고 최소한 10년은 내다보고 일관되게 정책을 밀어붙여야 한다.